



고(故) 이견희 회장과 리트리버



19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안내견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삼성

이재용 회장, 안내견학교 깜짝 방문 현장·상생 중심 ‘뉴삼성’ 비전 실천

SAMSUN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동행’에 집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생 현장에는 자리를 지키며 ‘뉴삼성’을 완성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삼성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혐기를 끝내고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 회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올 초 또다시 재판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 상생현장 아낌없는 행보
SSAFY 캠퍼스 개소식 등 직접 챙겨
공채 유지… ‘인재 제일’ 경영 지속**

공판은 올 초 시작해 지난 주까지 벌써 102회째나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 삼성물산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크게 성장하면서 합병 당위성도 증명됐지만, 여전히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중 92번이나 자리를 지켜왔다. 해외 출장 일정도 조정할만큼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를 하루 빨리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첫 서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상생 현장에는 아낌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 바로 광주에 있는 협력사 디케이 방문, 이어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부산 동아플레이팅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

찾는 등 동행 비전을 실천해왔다.

이 회장이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깜짝’ 방문한 것도 ‘동행’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안내견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영 복귀를 앞두고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약속하는 등 동행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안내견 학교가 고 이견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 직후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 회장이 취임 후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지만, 신경영 선언과 함께 30주년을 맞은 안내견 학교를 축하하며 ‘동행’ 비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뉴삼성 중심 철학은 ‘인재 제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고양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도 깜짝 등장해 수상자들을 축하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광주 캠퍼스 개소식과 SSAFY 대구 캠퍼스를 빠짐없이 찾은 등 인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구미전자공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4대그룹 중

유일하게 공개채용을 유지하는 것도 ‘인재 제일’ 철학을 위한 조치다.

이렇듯 이 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뉴삼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으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삼성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만큼, 이 회장이 나서야 선순환 노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삼성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이 회장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 ‘뉴삼성’ 선언 이목집중
사법리스크 해소 시기 관건
“재판으로 인해 경영행보 제한”**

이 회장 재판이 언제 끝날지에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장 취임 1년을 앞둔 상황, 고 이견희 전 회장의 신경영 선언 30주년이라는 것도 ‘뉴삼성’ 기대를 높이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복권하긴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탓에 위축된 모습”이라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한된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퍼피워커-안내견, 상생사회 이끄는 ‘한 걸음’

Q & A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안내견 사회화 등 함께 훈련 수행
사회 진출 시각장애인들 길라잡이**

보통의 ‘반려견’은 한 가정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안내견들은 고도의 훈련을 수행하며 많은 ‘동행인’을 만난다. 안내견학교에서 태어난 안내견은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홈케어 봉사자의 손을 거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수많은 훈련사가 함께 한다.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만남과 이별’이 공존했다. ‘안내견 분양식·은퇴식’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8마리와 은퇴 안내견 3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퍼피워커는 안내견의 사회화를 위해 1년여간 가정에서 안내견을 돌본다. 안내견 후보견들은 약 1년간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을 퍼피워커들과 다니며 사회화에 집중하는 기간을 가진다.

8명의 퍼피워커들은 안내견으로 합격한 단군·단풍·대한·존경·칸토·미치·케미·쿠기를 시각장애인파트너에게 보냈다. 예정된 이별에 퍼피워커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케미의 퍼피워커 강희정씨는 “한 번도 강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었는데 TV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며 “케미 덕분에 사춘기 큰아들이 부드러워졌고 둘째는 활발해졌으며 저와 남편은 뜻하지 않게 셋째 육아에 들어갔다”며 케미와 추억을 회상했다.

강씨의 집에서 막내아들이었던 케미는 안내견으로 합격해 시각장애인 최경

은씨에게 보내졌다. 케미와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최씨는 “무섭고 두려웠던 발걸음이 케미로 인해서 가벼워졌고 설레게 됐다”며 “이 행복을 케미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 7년간 양 안내견 활동을 마친 느티·한울·해담의 은퇴식도 열렸다. 안내견 느티는 현재진 파트너결에서 2016년 09월부터 2023 5월까지 7년 가까이 동행했다.

느티의 여생을 함께하게 될 윤준미 은퇴견 홈케어 봉사자는 “안내견학교에 올 때마다 이 아이(안내견)가 그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낀다”며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들의 사랑, 훈련사의 노고, 긴 시간을 동행한 파트너가 있었기에 현재가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퍼피워킹 봉사에 참여한 가정은 현재



19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차보희 프로와 지니 /허정윤 기자

까지 총 1000여 가구에 이른다. 지금은 퍼피워킹 신청을 하면 2년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또한 안내견은 퇴 후 입양을 통해 노후를 함께하는 자원봉사 가정, 미래의 안내견을 낳는 번식견을 평생 돌보는 봉사 가정까지 더하면 30년간 총 2000여 가구에서 안내견 봉사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은 안내견학교 시설과 훈련·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사회적 인식을 바

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올해 건사를 기존의 2배 크기로 확장하며 안내견의 번식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꾸미는 공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파트너를 위한 교육 워크숍 횡수를 늘리고 장애인을 배려한 청각 교육자료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양과 질’ 개선에도 투자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